

잡아함 112. 단지경

날짜: 9월 1st,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41>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는 해질녘에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나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물러앉아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물질이 끊어진 줄을 알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이 끊어진 줄을 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물질이 끊어진 줄을 알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이 끊어진 줄을 아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잘 물었다.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물질에 대해서 근심·슬픔·괴로움·번민이 다하면 욕심을 떠나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 지나니 이것을 물질이 끊긴 줄을 아는 것이라 한다.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대해서 근심·슬픔·괴로움·번민이 다하면 욕심을 떠나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지나니 이것을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이 끊어진 줄을 아는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밭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